

玉峯 白光勳 詩에 나타난 交遊關係 研究

박영관*

〈차례〉

- I. 序論
- II. 交遊詩 類型과 交遊人物
- III. 스승과의 交遊
- IV. 文友와의 交遊
- V. 竹馬之友와의 交遊
- VII. 結論

I. 序論

白光勳은 본관이 水原이요, 자는 瘡卿,이며 호는 玉峯이다. 그는 1537年 父 世仁과 光山金氏 사이에서 3남 1녀의 三男으로 長兄에서 태어났다. 1564년에는 司馬試에 應試 進士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혼탁 부패한 사회의 불의와 야합해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현실에 혐오를 느껴 문과에 응시하는 것을 단념하고 향리에 머물며, 湖南詩壇의 唐詩風 발흥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문우들과 인간관계를 맺었다. 1572년에는 명나라 頒登極詔使로 韓世能과 陳三謨가 왔는데 盧守愼의 초청으로 白衣製述官이 되었다. 이때 明使臣 林日煌은 玉峯을 ‘白老先生’이라 일컬을 만큼 詩와 文 뿐만 아니라, 書道에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1580년에는 思庵 朴淳의 천거

* 조선대학교

로 禮賓寺參奉兼鑄字都監監造官에 拜受되었고, 1582년에 昭格署參奉이 되었으나, 그해 46세 나이로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다.

玉峯 白光勳에 대한 논의는 『玉峯集』의 분석을 통한 시의 내용분류¹⁾, 시가 예술적·미적 차원의 양상²⁾, 交遊詩를 통해 삶의 태도³⁾, 주제의 미학적 관점에서 분석⁴⁾, 호남 시단에 끼친 영향⁵⁾, 三唐詩人으로서 위상⁶⁾, 당시풍의 특징⁷⁾ 등 다양한 관점에서 玉峯의 詩世界를 조명하려 하였다. 이들의 논의 중, 玉峯 詩의 주제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포의로서 전원생활을 추구하였던 삶의 의식을 작품에 대입함으로써 자잘한 삶의 기쁨과 의미에 집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交遊關係의 연구도 분류가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분석 또한 연보 중심으로 정리하는데 그칠 뿐이었다.

따라서 筆者는 본고에서 먼저 交遊詩 개념과 범위를 한정하고 그에 따라 玉峯의 交遊詩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범주화하려 한다. 이 범주화를 토대로 交遊한 人物간의 詩를 분석하여 玉峯이 추구하는 삶의 세계를 재구하려 한다. 交遊詩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삶은 관계에서 비롯되고 관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玉峯의 체계적인 평가와 삶의 세계 및 세계관의 재구는 인물간의 交遊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II. 交遊詩 類型과 交遊人物

한시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體를 중심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므로 논자에

- 1) 金永國, 「玉峯 白光勳의 詩 研究」, 圓光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4.
- 2) 김종서, 「옥봉 백광훈의 시에 나타난 전원의 양상」, 『한국한시연구8』, 한국한시학회, 2000.
- 3) 車京和, 「玉峯 白光勳의 交遊詩 研究」, 東亞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8.
- 4) 朴鍾勳, 「玉峯 白光勳의 詩世界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5) 김종서, 「玉峯 白光勳과 湖南詩壇의 交遊」, 『韓國漢詩研究』 10집, 2002.
- 6) 安炳鶴,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7) 朴秉益, 「玉峯 白光勳의 唐詩風 展開樣相 考」, 『古詩歌研究』 第14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4.

따라서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시의 분류는 중국의 梁나라 소명대자 蕭統(501~531)의 『文選』과 명나라 徐師曾의 『文體明辯』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文選』을 본떠서 만든 徐居正의 『동문선』에서 형식상 분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한문학에서 한시의 분류는 중국의 두 문헌을 바탕으로 그 체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제목의 형태를 통해서 추론한 口號, 歌行, 樂府, 楚辭, 琴操, 謠, 吟, 詞, 引, 詠, 曲, 篇, 唱, 弄, 長調, 短調, 愁, 歎, 哀, 怨, 思, 樂, 別 등이 그것이다.

한시에서 ‘交遊詩’라는 분류에 대한 논의는 筆者가 淺學하여 학계의 성과물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몇몇 성과물에서 논의한 ‘交遊詩’는 장르적 성격보다는 단순히 交遊하는 인물 간에 나누는 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한시의 하위 種으로 인식하여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交遊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불급하므로 다른 논의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交遊詩’는 서로 사귀거나 알고지내는 사람끼리 시의 형식을 이용한 交際의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交遊詩는 서로 사귀거나 사귀기 위한 또는 사귀면서 왕래할 때, 나누는 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한다면, 교유시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寄, 贈, 次韻, 別, 憶, 謝, 送, 來訪, 懷, 呈, 和, 與, 爲, 示, 挽, 夢見, 題軸 등의 詩題로 읊은 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조 문집의 편찬은 일반적으로 저자의 체신과 위엄을 손상시키는 외설적 내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玉峯集』이 1608년 초간 되었을 때 수록되었던 작품의 일부가 1742년에 간행된 시집에서는 刪削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작품으로 대체되어 간행된 사실을 들 수 있다.⁸⁾ 즉 1742년에 간행을 주도한 후손들이 선조의 문학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지나친 나머지 선조를 낭만적인 문인으로서보다는 점잖은 선비로 각색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인 산삭을 가한 것이다.⁹⁾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

8) 김종서, 「『옥봉집』의 체재와 임술춘간본에서 산삭된 시의 성격」, 『동방고전문학연구』 제 2집, 2000, 8쪽.

9) 안대회, 「한국한시의 텍스트 비평」, 『한국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출판부, 2000, 246쪽.

집에도 불구하고 白永生이 1933에 발간한 『玉峯集』을 텍스트로 삼았다.

玉峯集에 나타난 교유 시제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표와 같다.

寄	28/33	憶	5/6	懷	5	爲	2	題軸	30/37
贈	61/67	謝	3	呈	8/9	示	4	기타	13
次韻	30	送	18/19	和	5	挽	6		
別	26/27	來訪	9	與	3	夢見	3	누계	259/281

이를 인물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강상사	1	백광홍	1	유희춘	2	정경수	1	설순	4
고경명	1	서상사	2	유희향	1	정명부	3	성연	1
기백고	1	서익	4	윤관중	2	정인관	1	성원	1
김계의	3	서인준	1	윤유기	1	정언식	1	성진	2
김문보	3	성경	1	윤유심	2	정용	1	수경	1
김성원	1	성식	1	윤의중	3	정운	1	수화	1
김응인	1	성훈	4	윤학사	1	정원	3	신견	2
김제	8	소오	2	윤희평	1	정철	3	안상인	1
김제호	1	송인	3	이경	1	조경원	4	연상인	1
김종덕	1	신응시	1	이달	5	조수경	1	영인	1
김중호	1	심보	1	이봉	1	조희문	2	운수	1
김천일	2	심사경	1	이사원	1	죽곡	1	원상인	1
김호	4	쌍계옹	2	이산해	1	죽림수	1	원철	2
나사침	1	양대박	4	이수부	1	죽은	1	의연	1
남경창	1	양사기	7	이순인	8	최경장	1	인사	2
남복시	1	양사연	1	이연양	1	최경창	18	인희	1
노수신	3	양산형	5	이영	1	최기	1	정안	2
노진	1	양응정	4	이용수	1	최립	2	정인	1
문희개	2	양자징	3	이우	2	한사군	1	조은	1
문위세	3	오건	1	어운해	1	호남월	1	지문	1
문중길	1	오세현	3	이유근	1	희침	1	지연	1
문중욱	1	조원	1	이의엄	1	<이하스님>		지즙	1
민덕봉	1	위곤	1	이항	1	계희	1	치민	3
민충원	7	위사임	1	이후백	4	도문	1	치영	3
박무경	1	위이율	1	임봉신	1	도연	1	천감	1
박문걸	2	유덕수	1	임억령	3	만주	1	태상	1
박민현	1	유발	1	임장	1	보운	1	행사	2
박순	2	유계경	2	임제	3	불혜장로	2	홍인	1
방은현	1	유호인	1	임환	1	사준	6		
백광성	2	유홍	3	임희	1	상산인	1		
	59		64		55		64		41

이 분류에 의하면, 玉峯 白光勳은 劣惡한 시대적 상황이었고 46세의 짧은 生涯였지만 交遊 범위는 매우 다채롭다. 사승, 죽마고우, 8문장과 호남 문사들, 친족들, 지인들이 무려 옥봉집에 112명이고, 승려들도 36명이나 된다. 玉峯集에 나타난 인사들을 조사해 보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교류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白光勳의 생활과 連繫되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交遊詩를 제별로 묶어 보면 위와 같이 贈이 67首로 가장 많은데 그 인 사들은 49명이다. 이들 중 교류한 인물들을 보면 오세현·설순 스님·처영 스님은 3首, 양자정·윤관중·최경창·이우·사준스님·설순 스님·원철 스님·인사 스님·처민 스님·행사 스님은 2首, 김성원·이산해·임제·호 남월·죽림수·성진 스님·이수부는 1首이다. ‘寄’는 33首로 21명인데, 최경 창·민충원이 3首이고, 문위세·양산형·윤관중·정철·최립·양사기·김 문보는 2首이고 서익·이순인·수화 스님 등은 1首이다.

‘次韻’한 題는 30首로 20명의 시인의 시를 차운하였는데, 양응정·최경창 은 3首이고 노수신, 유홍, 이달, 임제, 임억령, 서상사는 2首이며 박순, 백광 성·백광홍·이순인·이후백·성진 스님 등이다. ‘題軸’ 題는 37首로 27명 이다. 김제가 1題 8首로 가장 많고 양사기가 3수이며, 김성원·김천일·노 수신·이달·정철·최경창은 1首이다. ‘別’題는 27首인데, 交遊人士는 모두 22명으로 민충원이 3首, 윤의중은 2首이며, 박순·서익·성훈·양대박·유 희춘·이순인·이후백·김계의 등은 1首이다. ‘送’題는 19首이고 18명인데, 유제경이 2首, 서익·이달·설순 스님 등 17명이 1首이다. ‘呈’題는 10首인 데, 성훈이 2題 3首이고 백광성·유홍·유희춘·이후백 등이 1首이다. ‘其 他’題는 13首인데 13명이며, 김천일·서익·양사언·이순인·최경창 등이 며 모두 1首다. ‘來訪’題는 9首인데, 유호인·이순인·쌍계옹 등 7명이다. ‘和’題는 5首이며 민충언·양산형·이순인·강상사 등 5명이다. ‘挽’題는 6 수인데, 이언양·이후백·임억령 등 6명이다. ‘懷’題는 5首인데 최경창 3수, 송인·이의엄 각 1首이다. ‘示’題는 4首인데, 양자정·이순인·정경수이다. ‘爲’題는 2首인데, 정명부·김계의 등이다. ‘夢見’題는 3首인데 최경창·김성 원이다. ‘與’題는 3首인데, 최경창·이달·김계의가 각 1수이다.

이를 다시 頻度가 3회 이상인 人士들 順位로 구분해보면, 최경창(18) · 이순인(9) · 김계(8) · 양사기(7) · 민충원 · 사준스님(6) · 양산형(5) · 양응정 · 이달 · 서익 · 성훈 · 이후백(4) · 양자징 · 오세현 · 정철 · 유홍 · 노수신 · 문위세 · 설순스님 · 송인 · 임억령 · 처민스님 · 처영 · 김계의 · 임제(3) · 최립 · 쌍계옹 · 임몽신 · 김문보 · 서상사 · 이우 · 성진 스님 · 행사스님 · 원철스님 · 인사스님(2) 등이다.

위의 자료와 옥봉의 연보를 통해서 추론하여 부류화하면, 玉峯 白光勳의 交遊 人物은 ① 朴淳, 노수신, 양응정 등 師承들, ② 고죽 최경창을 비롯한 송강 정철 등 竹馬故友, ③ 이순인 등 8문장등과 문사들, ④ 사준, 처민을 위시한 승려들, ⑤기타로 친족과 이름을 알수 없는 문인들, 기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과 交遊관계 재구의 필요성을 느끼나, 본고에서는 ①~④에만 중점적으로 논의하되 시편과 상호간 交遊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몇몇 인물만으로 한정한다.

Ⅲ. 스승과의 交遊

玉峯에게 학문과 문학에 영향을 준 스승으로는 朴淳, 李後白, 梁應鼎, 盧守愼, 林億齡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당대 영향력 있는 관료의 지위에 있었으며, 또한 직간접적으로 호남이라는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의 영향은 바로 옥봉의 문학세계와 삶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옥봉이 5歲에(1541년) 海南郡 玉泉面의 大山里로 옮겨와 옥당서당의 鄭應瑞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였다. 그후 13歲(1549년)에는 상경하여 朴淳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본격적인 학문을 시작하였다.

朴淳(1523~1589, 자는 사숙, 호는 靑霞子·思菴, 시호는 文忠)은 그는 訥齋 朴祥의 아우인 六峯 朴祐(1476~1549)의 아들로 나주에서 태어났다. 성장하면서 己卯名賢으로 사람들의 신임이 두터웠던 仲父 訥齋의 가르침에 많은 감화를 받았다. 특히 18세 때에 그의 아버지 松都留守 朴祐를 따

라 화답에게서 배웠다. 또한 俛仰과 河西를 師事함으로써 시문의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다.

玉峯과의 사제관계는 1580년에 朴淳이 관직에 천거하기에 이른다. 옥봉의 思菴과 交遊詩는 사암의 시를 차운한 「次思庵贈安四耐」, 「敬次思庵韻題淡峻軸」 2수와 「奉別思庵相公」의 1수가 있다. 사암의 옥봉과 교유시는 옥봉의 죽음을 애도한 「白玉峯光勳挽」이 『思菴集』에 실려 있다. 「奉別思庵相公」의 시는 옥봉이 사암을 얼마나 존경하는가가 잘 형상화되었다.

是非當日謾崢嶸	시비하던 그 날엔 속임만이 높더니만
信史如今筆法成	미더운 역사 필법을 이제야 이루셨네.
金櫃副藏王迹地	금궤를 왕적지에 부장하였고
堵觀儀重相君行	궁 안에서 임금 일 돕는 중한 의식 보이셨네.
恩兼許暇鄉關是	은혜는 고향에서 휴가 허락 받으셨고
寵及追先草木榮	총애는 추선에 미쳐 초목도 영화로웠네.
身致太平期曉夕	몸소 태평 이르러 아침저녁 기약하고
百祥天爲擁歸程	백상은 하늘이 하니 돌아갈 길 보호하시리.
	「奉別思庵相公」

당시에 날로 높아가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연히 춘추필법으로 세상의 시비를 바로잡은 선생님과 이별하는 玉峯의 심정이 잘 형상화된 작품이다. 경련에서 보듯이 사암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멀리하고 오직 임금을 보필하는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당시 선비들의 실천적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玉峯은 미련에서 스승의 가는 전도에 하늘의 모든 길상이 비치기를 축원하고 있다. 이는 玉峯이 思菴과 이별하지만, 思菴의 궁중 생활을 통해서 治者란 무엇인가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도 바로 이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역사를 바로잡고 임금을 잘 보필하는 儒者의 생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사암에게서 배움은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옥봉은 다시 14歲(1550년)에 金陵 博山村에 기거하는 靑蓮 李後白에게 나아가 배우는데, 이때 崔慶昌도 함께 배운다.¹⁰⁾ 즉 李後白(1520~1578) 자는 賀知章의 자를

본판 季眞, 호는 이백의 호를 본 단 靑蓮, 松巢, 荷衣居士, 諡號는 文淸)은 9세에 실부모하고 백부슬하에 자라다 16세에 조모인 정부인을 모시기 위해 금릉(강진 작천)에 머물렀으며, 24세에 금릉 박산현(강진 성진)으로 옮겨 오직 정주학에 힘썼다. 바로 이때 옥봉과 사제의 연을 맺었다. 청련은 또한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과도 교유하며 학문을 강론하였다.

옥봉의 청련과 교유시는 「敬次靑蓮先生題愼上舍軒」, 「詠盆蘭呈靑蓮先生」, 「奉別靑蓮先生」, 「靑蓮先生挽」 등 4수가 있으나, 『靑蓮集』에는 옥봉과 교유시가 없다. 이 중에 「詠盆蘭呈靑蓮先生」은 옥봉의 스승에 대한 마음과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잘 나타나 있다.

獨聽琴中操	홀로 거문고 중조를 들으며
長憐楚客詞	오래 초객의 사를 슬퍼하네요
移根自何處	어느 곳에서 뿌리 옮겼을까
傍案是真姿	책상 곁이 진정한 자태인데
一任風披拂	한번 바람 부는대로 맡기면
休教雨倒欹	비에 넘어가지 말게 하소서
江南秋事近	고향은 가을길이 가까워진데
還欲贈相思	다시 그리움만 보내고 싶네요

「詠盆蘭呈靑蓮先生」

玉峯은 난분의 자태를 보면서 근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경련에서 거문고 중조로 우국적인 초사를 들며 시대적 삶과 자신의 삶이 교차된다. 문득 옆에 놓인 군자의 인품을 표상하는 난분을 본다. 그리고 과연 이 난의 근본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본다. 이는 자신의 문제요, 유자들의 문제이다. 즉 유자들의 수양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고고함의 자태는 함련에서 비[雨]라는 외적 시련에도 굳건히 지키기를 바란다. 이는 바로 청련에 대한 바램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의 확고부동함을 형

10) 朴世采, 「孤竹詩集後敘」, “少與玉峯白光勳 遊學松川梁公靑蓮李公之門”. 『玉峯集』, 「年譜」. “庚戌 公十四歲 聞靑蓮李公以布衣講學于金陵之博山 就而學焉”

상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미련에서는 가을의 풍요로운 물질보다는 깨끗함 때문에 스승인 청련이 더 그림다고 표현하고 있다. 결국 스승에 대한 사모의 정이 끝이 없지만, 난분과 같은 당신의 모습은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이 라고 간접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고고한 자세를 배운 玉峯은 17세에 백씨인 岐峯 白光弘(1522~1556)을 따라 서울에 가서 松川 梁應鼎이 內翰(예문관 별칭)으로 있을 때 수학하였다.¹¹⁾

梁應鼎(1519~1581 자 公燮, 호 松川)은 學圃 梁彭孫(1480~1545)의 셋째 아들로 화순군 도곡면 월곡에서 태어났다. 그의 유년기 행적은 미미하고, 그 특징이라면 부친 양평손이 己卯士禍에 휘말려 좌절과 불운 속에 있어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기미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문에 뛰어났으며, 학업에도 독학 정진하였으나, 休菴 白仁傑(1497~1579)에게 雙峰精舍에서 조금 글을 읽었고, 16세에는 知止堂 宋欽(1459~1547)에게서 약간 글을 읽었다. 이후 식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내외직을 두루 거치다가 1577년에는 聖節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成均館 大司成에 임명되었다. 다시 외직으로 발령나자 歸田賦를 짓고 낙향하여 초야 있으면서 가업인 四書 吐釋과 학문연구에 몰두하면서 제자를 길렀다. 또한 ‘易子而教之’로 자식을 牛溪 成渾(1535~1598), 栗谷 李珣, 重峰 趙憲(1544~1592)에 나아가 배우게 했다.

옥봉이 송천과 교유한 시는 「次松川先生菁川韻」, 「次松川先生喜慶樓韻」, 「次松川寄楊通判之韻」 등 3수인데, 이는 직접 교유한 시는 없고 선생을 사모해서 차운한 시가 주류를 이룬다. 『松川集』에는 「忘題」¹²⁾라는 제에 ‘此詩 或云 贈白玉峯光勳’이라 하여 옥봉과의 교유한 시가 1수 있다.

滿目烟花屬品題 눈에 가득한 연화는 우열을 붙여 놓고
却從簫鼓動清溪 도리어 북 피리 따라 청계에 일렁이네

11) 『玉峯集』, 「年譜」. “癸丑公十七歲 從伯氏評事公入洛 梁松川應鼎以內翰在邸 又受學焉”
12) 『松川先生遺集』 卷之一, 詩七言四韻. ‘愛君元是爲清標 兼得才華與世超 筆法鍾王稱北面 詩篇何處擅南朝 田園歸興饒今日 雲樹離情惜此宵 却恨無錢堪買酒 暮天疏雨日蕭蕭’

風搖細浪沙痕濕	바람은 잔물결 일렁이어 모래 자취 젓게 하고
山入靑冥鳥影迷	산은 푸른 하늘에 솟아 새 그림자 어지럽네
春事幾時驚一半	봄의 일 어느 때나 잠깐을 놀라게 하건만
客情隨處念分携	나그네 마음 곳 따라 생각 나뉘어 끌리네
更教蘭棹重回首	다시금 조각배 저으며 거듭 머리 돌려보니
歸近華譙日亦低	귀로가 궁궐에 가까워지고 해 또한 저무네

『次松川先生菁川韻』

이 시는 스승인 松川의 「菁川」의 시운을 따라 지은 작품으로 玉峯이 어렸을 때, 추구하는 방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수련에서 연화는 시의 우열을 붙여 놓고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다. 그러한 모습은 마치 바람이 물을 움직여 모래를 젓게 하거나, 산이 높아 새들의 방향을 혼미하게 하는 것과 같다. 미련에서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보려 노력한다. 봄은 잠시 나를 놀라게 한다고 다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미련은 이러한 상황의 탈출이다. 조각배[蘭棹]를 타고 혼자 힘으로 무진 애쓰는 것은 결국 궁궐이라는 목표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가 추구했던 인생관은 애시당초 화려한 궁궐행 즉 벼슬살이에 기대를 했고 그래서 송천의 문하에 들어 열심히 한눈팔지 않고 노력하였음을 토로한 작품이다.

이러한 궁궐행을 위해 노력하던 옥봉은 22歲(1558년) 때 珍島에 謫居中인 蘇齋 盧守愼에게 약 2년간 배웠다.¹³⁾

蘇齋 盧守愼(1515~1590) 자는 寡悔, 호는 蘇齋·伊齋·暗室·茹峰老人, 諡號는 文懿·文簡)은 중종 10년에 서울의 樂善坊에서 活人署別提를 지낸 鴻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李延慶의 사위이다. 그는 주로 서울에서 성장했으나, 영남 사림과 가까운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세에 을사 사화로 간당들의 모함을 얻어 파직 당한 뒤 순천으로 유배되었다가 良才驛壁書事件으로 가중 처벌되어 珍島로 이배, 19년 동안 귀양살이하였다.

옥봉이 소재와 교유한 시는 「敬次蘇齋相公」, 「沃州奉次蘇齋」, 「奉餞蘇齋

13) 『玉峯集』, 「年譜」. “戊午 公二十二歲二月 遭內子鄭氏喪 時盧蘇齋謫居珍島 公又往學焉”

量移槐山」 등 3수가 있다. 『蘇齋集』에도 「別白文二生八月」,¹⁴⁾ 「酬寄白生彰卿新居按白光勳」,¹⁵⁾ 「戲贈白光勳」¹⁶⁾의 3수가 실려 있다. 이로 보아 옥봉은 소제에게 상당한 신뢰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에 1572년에는 명나라 頒登極詔使로 韓世能和 陳三謨가 왔는데 盧守愼의 초청으로 白衣製述官으로 추천하여 함께 했다. 특히 蘇齋가 解配되어 떠나는 모습을 그린 「奉餞蘇齋量移槐山」은 제자로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海國生春候	섬지방에 봄기운 생기더니
鴻恩先歲華	큰 은혜 봄꽃보다 먼저네요
心驚翻訝夢	마음은 놀라 꿈인가 하였더니
淚下欲成河	쏟아지는 눈물 시내를 이루려 하네요
弟妹容顏改	제매들은 얼굴이 바뀌었고
庭闈鬢髮皤	내당 마님은 머리카락 하얗겠지요
人生須是命	인생은 모름지기 명이 있으니
天道亦無他	하늘의 이치 또한 다름이 없네요

玉峯은 스승인 사암의 해배 소식에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는 서글픔을 감상적으로 읊은 시이다. 수·경련에서 진도 解配는 이른 봄꽃이 피기 전에 성운을 입게 되어 이별하게 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하여 그간의 정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함련에서 이제 선생님은 자녀들의 얼굴이 바뀌고 마나님의 흰머리카락을 소재로 활용하여 그간의 고생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미련에서 인생이 운명에 달려 있듯이 하늘의 법도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이치적 삶에 순응하기

14) 『蘇齋先生文集』 卷之四. ‘莽蕩乾坤阻 蕭條性命微 詩書禮學未 三十九年非 露菊憑烏几 秋蟲掩竹扉 此時文白至 三宿乃言歸(三十九。一作四十五)’
 15) 『蘇齋先生文集』 卷之四, 詩. ‘君子居何陋 吾卿必此濤 峯紆浪山秀 溪遠玉泉深 雲谷無消息 花源費討尋 幾問陶屋白 一畝邵窩陰 廐庫寧先廟 庖脛卽次砧 置齋要養慮 開塾爲論心 方策森圭壁 規箴揭砭鍼 安窮臥表雪 憂歲望殷霖 黍稷餘私釀 桑麻給賦絰 植蓮龜出曝 移竹鳳來吟 境僻無爭席 林深不媿衾 能言是商賜 緩步豈齊岑 風月閑依舊 關梁閉至今 誰憐未殫繇 自作不恭禽 處處山陽笛 迢迢巷裡琴 應兼憶鄭驛 相爲旅情斟’
 16) 『蘇齋先生文集』 卷之六, 詩. ‘莫弄無功筆 須傾有限盃 男兒百年內 幾箇守靈臺’

를 은근히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玉峯이 운명론적인 삶을 수용하는 입장을 엿볼 수 있다.

石川과의 사승관계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이미 12歲(1548년)에는 향리에 머물렀던 石川 林億齡, 松川 梁應鼎과 酬唱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玉峯이 18歲 되던 해에 石川 林億齡이 歸鄉하는 玉峯에게 시를 지어 전송하듯 玉峯과의 관계가 상당히 깊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石川 林億齡(1496~1568 자는 大樹, 호 石川, 荷衣道人)은 海南 해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놀개 박상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1516년(중종 11) 진사가 되고 1525년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1545년(명종 즉위) 금산군수 때 을사사화가 일어나 小尹인 동생 百齡이 大尹의 선배들을 내몰자 자책을 느껴 병을 핑계로 낙향하여 해남에 은거했다. 이후 다시 관에 나가 1552년 동부승지에 등용되어 병조참지를 지내고 강원도관찰사를 거쳤지만, 1557년 담양부사로 제수되어서는 사직하고 성산일대에 은거하면서 성산시단의 일원이 되었다.

옥봉이 석천과 교유한 시는 「海臨寺次石川先生」, 「二友堂次石川先生」, 「挽石川先生」, 3수가 있고, 석천이 옥봉에게 준 시는 「送白光勳還鄉」¹⁷⁾, 「次玉川韻 白光勳」¹⁸⁾의 2수가 있다. 이 중 옥봉의 「海臨寺次石川先生」는 삶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幽人夜不寐	숨어사는 이 밤에 잠 못 이룬데
月出鳥驚栖	달이 떠 새는 둥지에서 놀란다
多少秋山葉	얼마간 가을 산에 낙엽이 지니
還愁舊路迷	도리어 옛길 잃을까 걱정이네

옥봉의 삶에 대한 방향을 고뇌하는 시이다. 화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

17) 『石川先生詩集』 卷之四, 五言絕句. ‘江月圓還缺 庭梅落又開 逢春歸未得 獨上望鄉臺’

18) 『石川先生詩集』 卷之七, 七言絕句. ‘雪滿長松月滿臺 此時朋自玉川來 春和我欲尋幽谷 只恐山風落盡梅’

하여 조용한 곳에 숨어 사는 사람[幽人]으로 늘 작은 것에 놀라면서도[鳥驚] 자신이 가진 삶이 혹여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전락할까 우려함이 잘 나타났다. 그의 삶의 세계는 석천이 가졌던 ‘自知君子貴 從見大人亨’¹⁹⁾으로 군자가 자신의 문제를 알고, 대인으로서의 체통을 지켜나가는 삶인 것이다.

이처럼 玉峯은 스승들과 交遊한 시편들에서 초기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 학문에의 전념하는 것은 유자로서의 삶, 청고한 인품을 지닌 관료로서의 삶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는 운명론적인 삶을 수용하여 대인군자로서 삶을 맹서하는 의식도 나타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IV. 文友와의 交遊

『論語』 卷十二 「顏淵」편에 “曾子 曰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이라 하였다. 즉 학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仁을 補益한다는 말이다. 시인에게 있어서 문 즉 학문은 바로 시를 쓰는 일이다. 이 시를 주고받는 일은 자신의 정을 표출하여 교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감의 대상은 18세에는 무이동에서 수창한 팔문장²⁰⁾과 시풍을 공유했던 詩友와 文名을 통해서 만나게 된 문우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팔문장의 대표적인 交遊人物은 李純仁이다. 李純仁(1533~1592)은 자가 伯生 또는 伯玉이요, 호는 孤潭이며, 본관은 全義다. 그는 栗谷, 退溪, 南冥, 牛溪와 같은 巨儒의 시대에 태어나 이들의 영향을 받으며 유학자이며, 관료로서 立身하였는데 東西 分黨의 당쟁 속에서 때때로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 우거하며 독서와 講學에 전념하기도 하는 생애를 보냈다. 임진왜란 때에는 중전과 동궁을 扈從하여 피난 가다가 순직함으로써 사후에 이조판

19) 『挽石川先生』, ‘威鳳眞祥世/三朝出入榮/自知君子貴/從見大人亨/臺臺承餘論/休休托晚生/永懷高臥日/那不小車行’

20) 『宣祖實錄』 卷之十八 甲申條 “上曰 純仁侍講不久 又不任事 予不知其爲人 如何故問之耳 依啓 純仁 少與李山海 崔昱 崔慶昌 白光弘 尹卓然 宋翼弼 及李珥爲友 號八文章”

서를 추증받고 全陵君에 봉해지는 등 官人으로서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었다.

玉峯이 고담과 交遊한 詩는 「李伯生鷄山別業」, 「寄伯生」, 「李伯生第夜別」, 「訪李伯生」, 「次李校理伯生」, 「題北辰寺雪後軸軸上有李伯生詩」, 「奉恩寺蓮亭次李校理伯生見示之作」의 7편이 있다. 李純仁의 문집엔 玉峯에게 주는 시로는 「重陽寄白彰卿」²¹⁾ 한 편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寄伯生」은 옥봉의 이순인에 대한 정감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梨花寂寂掩西樓	배꽃이 쓸쓸하게 서쪽 누각을 가리는데
回夢蓬山憶舊遊	봉래산 옛 유람만 기억하며 다시 꿈꾸네
今夜故人何處宿	오늘 밤 친구는 어느 곳에 머무르는고
滿江明月一孤舟	강에 가득한 밝은 달, 한 척의 외로운 배

이 시는 玉峯이 李純仁과 젊은 날 어울려 유람하던 추억을 회고하면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결연에서 달빛 가득한 강에 외로이 배 한척만 있다고 하여 자신의 처지를 잘 나타내며 아울러 전연에서 보듯이 친구의 안부가 마냥 궁금함을 나타냈다.

玉峯이 蓀谷과 交遊는 朴淳으로 인하여 맺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원 광한루에서 남원부사 孫汝成의 주관으로 林梯, 白光勳, 李達, 梁大樸 등의 문인들이 만나 수창했던 만남 등이 시우로서 더욱 교감을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李達(1539?~1610?)은 본관이 洪州며, 자는 益之요, 호는 蓀谷, 西潭, 東里 등이다. 그는 고려조 雙梅堂 李詹(1345~1405)의 후손으로 父 이수함과 母 홍주 관기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났다. 풍부한 독서로 박학다식하여 한 때 미관말직인 한리학관을 지냈다. 그러나 주로 강원도 원성군 부론면 蓀谷里(현재 원주시)에서 살았으며, 그의 말년에는 관서지방에서 안착하여 살았던 것 같다. 그는 처음에는 호음 정사룡에게 두보와 소식을 배웠으나,

21) 李純仁, 『孤潭逸稿』 卷之二, 「七言絕句」, 「一望天涯海路長 知君病後正思鄉 家家酒熟黃花發 醉插茱萸倚夕陽」

나중에 사암 박순에게 당시를 배웠다.

옥봉이 이달과의 교유한 시는 「廣寒樓次蓀谷李益之」, 「次李益之有贈」, 「八月十一夜與嘉運益之同宿奉恩寺」, 「送李益之遊關北」의 4首가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八月十一夜與嘉運益之同宿奉恩寺」는 삼당시인들의 삶의 세계를 대변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重尋秋水寺	다시 가을 불이 분 절집을 찾으니
烟樹廣陵西	광릉 서쪽엔 나무에 내 끼었네
聞磬路非遠	경쇠소릴 들으니 길은 멀지 않은데
望雲行亦迷	구름을 바라보니 갈 길은 모르겠네
夜深僧入定	밤이 깊어 스님네 선방에 들고
月出鳥驚栖	달이 떠 새는 놀라 등지를 찾네
共就中寮宿	함께 중방에 나아가 자려는데
寒山碧殿齊	차운 산 푸른 전각이 가지런하구나

제목에서 보듯이 三唐詩人이라 일컫는 세 사람이 봉은사에서 자며 느낀 감정을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奉恩寺는 당대 시인묵객들이 자주 찾아 시를 논하고 세상을 논했던 공간이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탈속적 공간으로서의 대상으로 잘 형상화된다. 그런 곳에서 경쇠소리, 달빛 등의 묘사는 선경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기에 그들이 동경했던 공간이며 이상향의 세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다.

옥봉이 양사언의 형제와의 교유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양사언이 추구한 선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옥봉의 시편들에서 엿보이는 이상향이 선계임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玉峯의 시편에서는 양사언과 교유시는 1편이고, 그의 동생 양사기와 시편이 6편이 실려 있으므로 양사기와 교유시를 살펴본다.

楊士奇(1531~1586)는 본관이 淸州며, 자는 應愚요, 호는 竹齋이다. 돈녕주부 希洙의 아들이며, 士彦의 아우이다. 1533년 별시문과에 급제했고, 호조의 郎官에 올랐다가 원주목사·부평목사 등을 지냈다.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으며, 형 士俊·士彦 함께 詩에 뛰어났다.

『玉峯集』에 양사기와의 交遊詩는 「題楊通判應遇靑溪障」, 「寄楊應遇」, 「別楊應遇」, 「沙峴路上題應遇扇」, 「楊通判永題靑溪障」, 「次松川寄楊通判之韻」 6수가 있는데, 양사기의 문집이 전하지 않아 양사기가 쓴 시는 찾아볼 수 없다. 양사기와의 交遊는 仙界로의 진입보다는 인간세계의 榮華는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사물이나 人事도 항상 일정한 모습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불운도 결국은 그러한 세계의 변화의 한 양상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불운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自慰는 즉 은일의 세계를 토로한다.

涼風生高樹	서늘한 바람은 높은 나뭇가지에서 나고
微雨洒秋響	가랑비는 가을 소리를 내면서 뿌리네
幽人起中夜	숨어사는 이는 밤중쯤에 일어나서
默感千里想	묵묵히 생각하니 천리의 그리움이라오
居然年景迫	그럭저럭 지내니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復此音徽曠	다시 이 곳에 거문고만이 헛되이 울리네
雲波滌無期	구름과 물결 아득하여 기약도 없고
嶺陸互迷望	산과 물은 서로 바라보기가 아득하네
愁來取琴彈	시름 오면 거문고 끌어안고 타면서
調古無人賞	옛 곡조를 쳐도 감상할 사람 없구려
瑤草行休歇	아름다운 풀도 시들기를 그치니
流螢度虛幌	나는 반딧불도 빈 휘장을 가로지르네
榮華諒難恃	영화는 진실로 믿기가 어려우니
物情靡定狀	세상사라는 게 정해진 모습이 없다네
歎息竟此辰	아서라, 마침내 이때에는
放歌當自廣	노래 부르며 스스로 마음 달래야 하네
	「寄楊應遇」

표면은 세상에 대한 불만과 그로부터 오는 고독감을 읊은 시이다. 그래서 ‘幽人起中夜 默感千里想’이라 하여 스스로 幽人이라 하고, 밤중에 일어나면 누군가 그리워진다고 하였다. 그 대상은 자신을 알아주는 벗이요, 세

상일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가는데도 지음을 찾지 못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復此音徽曠). 이는 자신의 현실적 삶에 대한 체념과 위안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세적 삶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歎息竟此辰 放歌當自廣’라 하여 노래나 부르며 스스로 마음 달래자고 언명함으로써 현실과 타협해 버리고 만다. 이는 당대의 현실이 주는 상실감을 옥봉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玉峯이 많은 交遊詩를 남긴 이는 만죽 서익이다. 徐益(1542~1587)은 본관이 扶餘며, 자는 君受, 호는 萬竹, 萬竹軒이다. 1569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병조·이조좌랑, 교리, 舍人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서천군수·안동부사·의주목사 등을 지냈다. 문장과 도덕, 그리고 氣節이 뛰어나 李珣·鄭澈로부터 志友로 인정받았다. 의주목사로 있을 때에는 鄭汝立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이이와 정철을 변호하는 소를 올렸다가 파직되기도 하였다. 후에 은진의 葛山寺에 은거하였다. 玉峯이 만죽과의 교유가 어떻게 형성되었지는 정확히 고구할 수 없다. 다만, 만죽이 정철과 이이와 상당한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玉峯도 자연스럽게 交遊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玉峯과 만죽과의 교유시는 「徐君受家」, 「寄竹崖徐君受」, 「送徐君受小尹之關西」, 「與萬竹京口別」의 4편이 실려 있고, 『萬竹軒集』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玉峯의 「與萬竹京口別」는 문우들과의 정리를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掛席渡漢水	돛 달고 한강 물을 건너서
驅車入葦關	수레 몰아 위관으로 들어왔네.
相分一千里	서로가 헤어지면 천 리리니
秋日又西山	가을 해는 또 다시 서산에 지오.

친구가 그리워서 한달음에 찾아왔지만 또다시 이별이라는 상황을 직면하게 됨을 노래한 시이다. 기·승구에서 배를 타고 말을 몰아 不遠千里 찾았건만 벗과 다시 헤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화자는 섭섭하다거나 서운하

다는 말은 없다. 다만, ‘相分一千里’라 하여 만나면 너무나 가깝고 또 헤어지면 천리나 되는 것처럼 멀다고 하였다. 어차피 만나고 헤어짐이란 삶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秋日又西山’라는 말로 숨숨하며 언제나 또 만날까 하는 아쉬움과 다음에 또 만날 것이라는 기약 없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즉 玉峯은 만남과 헤어짐을 운명적인 것으로 수용한다.

玉峯은 문우들과 交遊한 시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이상향인 선계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을 만남과 헤어짐이 순리이듯이 현실세계가 주는 상실감을 그대로 수용한다.

V. 竹馬之友와의 交遊

김득신은 「三益堂序」에서 16세기의 호남을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대체로 호남의 풍속은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 歌姬와 좋은 술로 놀기를 다 하고 호화로움을 다투어 경학에 힘쓰지 않으며 또한 문필의 업을 숭상하지 않는다. 손꼽아 본다면 진의 奇大升 한사람의 학문과 林億齡, 高敬命, 林悌, 白光勳의 詞華일 뿐 힘써 공부하는 사람은 奇大升의 뒤를 이어 일어나지 않았다.”²²⁾

이로 미루어 당대의 시인으로서 白光勳과 동향으로써 交遊한 시인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바로 林億齡, 林悌, 高敬命 등을 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평생이 지기로 삼았던 孤竹, 계산풍류의 공간으로써 누정문학을 형성하였던 송강 정철, 양산형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담양 누정문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하서 김인후, 양산보 등도 동향인으로 교류했던 시편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 중, 평생 문우로서 함께 했던 孤竹 崔慶昌, 松江 鄭澈, 白湖 林悌, 양산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金得臣, 『栢谷文集』卷五, 張十九, 「三益堂序」. ‘蓋湖南 以靡衣媮食歌姬美酒 窮遊衍鬪豪華 不務經學 亦不尙操觚之業矣 若指屈 則往者 奇高峯一人之學問 林石川高霽峯林白湖白玉峯之詞華 而着力爲學之人 不繼起奇高峯之後’

崔慶昌(1539~1583)은 본관이 海州이며, 자는 嘉運이고, 호는 孤竹이다. 고려 문헌공 沖의 18세손이요, 최만리의 5대손으로 부친 崔守仁은 平安道 兵馬節度使를 지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재가 있어 아홉 살 되던 해는 <登南嶽>²³⁾을 지어 호방한 성품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12세에 백광훈과 함께 양응정, 이후백에게 배웠고, 18세에는 무이동에서 수창하여 팔문장²⁴⁾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이후 과거에 급제하여 正言이 되어 사절수행으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홍량과의 관계로 영광군수로 강등되자 사임하고 외삼촌택에서 머물렀으나 대동찰방으로 복직되었는데, 품계가 종사품에서 중육품으로 강등되는 등 벼슬살이가 순탄하지는 않았다. 특히 三唐詩人 중에 유독 관료 생활을 했던 孤竹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玉峯의 孤竹과 交遊한 詩는 18수가 있다. 孤竹 역시 玉峯과 나눈 시는 「寄玉峯」, 「別玉峯」, 「挽玉峯」, 「次寄玉峯」의 4수가 있다. 玉峯이 孤竹에 대한 생각이 잘 표현한 시는 「憶崔嘉運」이다.

門外草如積	문밖엔 풀이 쌓인 듯 하고
鏡中顏已凋	거울 속에 낫빛은 이미 시들었구려
那堪秋氣夜	가을 밤 기운을 어찌 감당할지
復此雨聲朝	여기에 아침 빗소리마저 들리니
影在時相吊	그림자만이 때로 서로 위로하고
情來每獨謠	마음 일면 매양 호을로 노래하구려
猶憐孤枕夢	그래도 고침몽을 어여뻐여겨
不道海山遙	해산이 멀다고 말하지 않네 그러
	「憶崔嘉運」

어느 날 문득 고죽이 생각나고 그리워져 자신의 소회를 담담히 읊은 시이다. 어느 면에서도 보고 싶다는 말은 없지만, 화자가 대상을 그리워하는

23) 『孤竹集』, <登南嶽-九歲作>. “蒼翠終南嶽 崔嵬宇宙間 登臨聊俯瞰 江漢細潺湲”

24) 『宣祖實錄』 卷之十八 甲申條 “上曰 純仁侍講不久 又不任事 予不知其爲人 如何故問之耳 依啓 純仁 少與李山海 崔昱 崔慶昌 白光弘 尹卓然 宋翼弼 及李珥爲友 號八文章”

마음은 잔잔한 여운으로 퍼져 나간다. 즉, 수련의 ‘草如積’, ‘顔已澗’은 단순히 경치를 읊은 것 같지만, 그 속에 함의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쉬움이 듬뿍 담겨있다. 그래서 경련의 빗소리는 친구의 목소리로 대치하는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함련과 미련에서 화자는 혼자이지만 그대가 있어 항상 외롭지 않다는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평생의 지기였고, 지음의 역할을 충신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심전심의 마음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언제나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 함께 한다는 작품이다.

鄭澈(1536~1593) 자는 季涵이요, 호는 松江이다. 그 아버지가 사화의 여파로 昌平으로 낙향하였는데, 이는 조부의 산소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때 창평에서 약 10년간 (27세때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머물면서 松川 梁應鼎, 河西 金麟厚, 俛仰亭 宋純 등에게 수학하고 후에 高峰 奇大升에게도 배웠다. 시는 林石川 林億齡 배웠으며, 三唐시인으로 일컬어진 玉峯 白光勳, 孤竹 崔慶昌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것 같다. 따라서 당시 창평이 누정문학의 발상지로 역할을 할 때, 樓霞堂 金成遠, 霽峯 高敬命, 玉峯 白光勳 등은 평생의 지우로 관계를 맺었다. 이로부터 옥봉과는 평생 교유관계를 맺었는데, 玉峯이 松江에게 쓴 詩는 「寄季涵直省」, 「嘲鄭員外季涵」, 「有僧向洛山因寄鄭方伯」 등이 있고, 松江이 玉峯에게 준 시는 「與白玉峯光勳遊邊山」,²⁵⁾ 「挽玉峯白彰卿」²⁶⁾, 두수와 祭文 「祭玉峯白彰卿文壬午」²⁷⁾가 있다.

古屋照殘燈	옛 집에는 희미한 등불 비치고
空庭病葉下	빈 들에 병든 잎새 내리고 있소
遙知故人懷	먼 곳에서 고인의 마음을 아니
風兩西宮夜	西宮 밤에는 비바람 치리
	「寄季涵直省」

25) 『松江續集』 卷之一, 詩〇五言絕句. ‘水淺窺龍窟 松疏露鶴巢 欲知仙在處 須入白雲高’
 26) 『松江續集』 卷之一, 詩〇七言律詩. ‘海內悠悠知己少 惟君與我夙心親 湖山未遂連牆約 幽顯難成隔路人 紫陌風埃歌激烈 錦城煙雨淚酸辛 遺孤受托非無意 奈乏劉家德義新’
 27) 『松江續集』 卷之二, 祭文, ‘岐山秀泐水明 惟子之氣 詩歌清筆法妙 惟子之才 樽酒論文 肝膽古劍 廿載同襟 南到錦城 靈輦不發 神遲巨卿耶否 嗚呼哀哉’

당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로하는 맘으로 보낸 시이다. ‘病葉’는 아마 松江 鄭澈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이라 생각된다. ‘遙知故人懷’ 먼 곳에 있지만 一片丹心 나라를 걱정하는 松江의 뜻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어찌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엔들 안 들어 갈 것이며, 그대를 언젠가는 부를 것이니 걱정 말라는 위로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옥봉과 정철의 평생지교는 옥봉이 죽자 송강은 마침 그해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옥봉의 장례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

임제와의 교유는 남원에서 수창연회 뿐만 아니라, 동향의 문우로서의 교유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林梯(1549~1587)는 자가 子順이며, 호는 백호, 楓江, 碧山, 嘯癡(소치), 謙齋 등이다. 그는 세상일에 얽매이거나 남들과 무리짓기를 꺼려하여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였으나, 뛰어난 詩才와 독특한 제재로써 이룩한 그의 시 세계는 분명히 凡常을 뛰어넘고 있다. 그래서 당대의 李恒福, 李達, 申欽, 梁慶遇 등이 “林梯는 詩語가 매우 염려하니 대개 杜牧을 배운 사람”²⁸⁾으로 평가 받았으며, 스스로 “唐의 詩人 중에서 맹호연과 두목이 제일류가 된다.(唐之詩人, 孟浩杜牧爲第一流)”라 하여 공공연히 杜牧 詩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玉峯이 林梯와 交遊한 詩로는 「廣寒樓次白湖林子順」, 「次贈林子順」의 2수가 있으나, 林梯의 『白湖集』엔 찾아 볼 수 없다. 두 편의 시는 광한루에서 수창한 시로 추측되는데, 특히 龍城酬唱詩로 「次贈林子順」은 임제와 관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盡欄西畔綠蘋波	그림 난간 서쪽 두둑에 푸른 마름 일렁이고
無限離情日欲斜	이별의 정 다함없는데 해도 비끼려 하네
芳草幾時行路盡	방초는 가는 길에 어느 때에 다할 건가
青山何處白雲多	청산은 어느 곳이나 흰 구름이 많아라
孤舟夢裡滄溟事	외로운 배 꿈 속에는 바다 이야기 있고

28) 語甚艷麗, 蓋學樊川者也.(『晴窓軟談』); 林正良白湖梯爲詩學樊川, 多重一世.(『霽湖詩話』)

三月烟中上苑花 삼월 연기 속에 상원에는 꽃이 피었네
 樽酒易空人易散 술통은 쉽게 비어 사람 쉬이 흩어지고
 野禽如怨又如歌 들새는 원망하는 듯 노래 부르는 듯

이 시는 광한루의 정경을 통해서 삶의 여정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읊었다.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혼자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배어있다. 경련의 ‘靑山何處白雲多’는 언제나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 속에서 함련의 ‘孤舟夢裡滄溟事’으로 혼자임을 스스로 언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미련에서 ‘술’은 자신의 세계를 대변해 주었고, ‘野禽’의 지저귀음이 바로 자신의 심경임을 대변하고 있다. 어찌면 이러한 삶의 방향의식의 혼란은 그 시회에 모였던 시인들의 삶의 인식을 대변했을 거라고 추론된다.

양산형은 자가 天維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그에 대해 구체적인 인물의 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 옥봉이 梁山迥과 교유한 시는 「寄梁山維(五絶)」(1題 2首), 「謝天維」, 「寄梁山維(七絶)」, 「和梁山維落梅韻」의 5수가 실려 있다. 특히 옥봉의 「寄梁山維」는 양산형²⁹⁾이 고향의 벗이었으리라 추론된다.

一庭晴雨長新筍 뜰에 비가 개이니 새로운 싹이 자라고
 泥墜書床乳燕回 진흙이 책상에 떨어지니 새끼 제비 돌아왔네
 閑思悠悠却惆悵 한가로운 생각이 그지없어 도리어 슬퍼지니
 綠陰終日待君來 종일토록 녹음 속에서 그대 오길 기다린다네

마치 이웃에 사는 다정한 친구에게 놀러 와서 한담을 나누길 바라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기·승구에서 지나간 추위에 시달린 겨울은 가고 이제 봄이 되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비 개이고 난 후에 새싹이 막 피어 오르고, 삼진날이 되자 제비새끼가 난다고 하였다. 이제 상춘의 계절임을 말해 준다. 즉 새끼제비 날개 짓이 결국에는 친구에게 날아가 보고 싶음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이제 상춘절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그리워

29) 송천 양응정의 4자식 이름이 ‘山’자 行列로 보아 그쪽 집안의 자식으로 추론된다.

지는 사람은 친구일 게다. 그래서 결구에서는 ‘緜陰終日待君來’라하여 녹음이 짙어지는 길목에서 그대를 눈이 빠지게 그리워한다고 하였다. 이 시는 함께하는 평생의 지기인 친구와 함께 하길 바라는 감정이 넘쳐나는 작품이며, 그 공간은 바로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세계인 것이다.

玉峯이 고향의 친구 즉 문우들과 교유한 시에는 평생지기로 삼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그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위로를 하면서도 자신이 외로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죽마고우임을 읊고 있다.

VI. 沙門과의 交遊

조선조는 유교의 사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사대부가 통치하던 사회였다. 그러나 통치이념과 유자들의 삶은 간혹 지배 이데올로기와 괴리된 삶을 영위한 집단이 생겨나기도 했다. 즉 불교에 대한 인식이 이단으로 배척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대부와 승려 사이의 교유는 일반화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사대부들의 문집에는 사대부와 승려간의 접촉과 교유를 짐작할 수 있는 시문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유가 깊어진 경우에는 神交를 이루기도 하여 이러한 유자들을 ‘方外人’으로서 분류되기도 했다.

사대부와 승려 간에 교유는 무엇보다 조선조 사회에서 사대부와 승려 계층만이 한문을 부려 쓸 수 있어 소통의 대상으로 서로 만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당대의 승려에 따라서는 본래 사대부가의 자재로 재가 시에 유학과 문장을 공부한 이도 있고, 불교를 공부하고 시문 짓기의 기초를 다진 이도 있었기 때문에 승려들과 교유는 사대부들에게 큰 자산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당대의 사대부들 중 遊客으로서 행위자들은 절이라는 공간이 留宿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玉峯의 경우 佛僧과의 交遊는 어렸을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그의 형 評事公 岐峯 白光弘과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공간이 바로 장흥에 있

는 寶林寺였고³⁰⁾, 삶의 안식처 내지는 문우들과의 交遊 공간으로 고향의 근동에 있던 大屯寺와 白蓮社였다. 또한 젊은 시절 玉峯이 서울에 올라가 문우들과 交遊했던 공간 중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추측되는 곳이 바로 奉恩寺였다.

이처럼 玉峯은 당대의 사대부로서 불가와 상당한 교유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玉峯集』에 실려 있는 交遊 佛僧이 36명이나 된다. 비록 내력은 찾아 볼 수 없지만, 이 중 思峻, 雪淳, 處敏, 行思 스님과의 交遊는 다른 佛僧들에 비해 많은 내왕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玉峯이 행사스님과의 交遊한 작품은 2수가 있는데, 인간적 交遊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특히 행사스님의 「海南訪玉峯³¹⁾」은 玉峯과 交遊에서 화답한 시로 유일한 작품이다.

相思人在海南村	그리워하는 이 해남촌에 있다는데
消息天涯久未聞	먼 곳 소식은 오래도록 못 들었네
今日獨尋芳草路	오늘 호을로 방초길로 찾아가는데
夕陽何處掩柴門	석양에 어느 곳 사립문을 닫는고

이 시는 玉峯이 해남에 있다는데도 소식이 없자 행사 스님이 직접 찾아 나선다. 때마침 저녁이라 남의 집 사립을 다는 모습을 보고 혹여 옥봉의 소식이라도 듣지 못할까하는 아쉬움이 잘 형상화된 작품이다. 이에 대해 玉峯은 「贈行思上人」라는 시로 행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孤村一病又黃梅	외따로운 마을에 병들어도 매실은 또다시 익고
愁見風光日日催	풍광이 나날이 재촉함을 근심스레 바라보오.
芳草閉門無客到	꽃다운 풀 닫힌 문에 오는 손이 없더니
夕陽聞犬有僧來	석양에 개 짖는 소리 스님께서 오셨구려.

「贈行思上人」

30) 「寶林寺次徐上舍舊與伯氏讀書于此」

31) 張志淵, 『大東詩選』 卷之十一, 「行思條」

자연형상물을 통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스님에 대한 예우를 솔직하게 표현한 시이다. 외따로이 떨어진 궁벽한 시골[孤村]에서 늘 병들어 있어도 계절은 어김없이 바뀐다. 그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오롯하게 하는데 마침 다정한 스님이 찾아오니 얼마나 반가우랴. 옥봉의 스님들과 교유는 바로 지기로서의 의미임을 두 편의 시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옥봉은 스님들을 지기처럼 그리워하기도 한다.

孤雲無跡鶴無依	한 조각 구름 흔적도 없어 학은 의지할 데 없고
每到溪南記別時	매양 시내 남쪽에 이르면 이별한 때를 기억하네
秋雨閉門何處寺	가을비에 문을 닫고 어느 절집에 계시면서
一燈深夜照清羸	깊은 밤 외로운 등불에 맑고 파리한 몸 비추는고
	「憶處敏上人」

이 시는 處敏스님에 대한 그리움을 잘 형상화한 작품이다. 起句에서 鶴은 玉峯 자신에 대한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승구에서 이별의 아쉬움은 더욱 그리움으로 전이 될 수 있다. 즉 스님과 헤어졌던 시내 남쪽 가를 서성이며 그때를 생각하고 있다. 전·결구는 청수한 모습의 스님을 떠올림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화자가 대상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즉 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정적 이미지를 통해서 玉峯이 스님에 대한 그리워 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雪淳上人을 보내는 시에서는 인간적 交遊는 삶의 세계로 확장된다.

政我向東路	바로 나는 동쪽 길을 향해 와서는
送君西出關	서관으로 나가는 그대 보내오
波通臨日域	물길은 해 비치는 땅으로 통하였고
天盡望遼山	하늘 다한 곳에 먼 산이 바라다보이네요
往事人誰在	지난 일에 사람은 누가 남아 있으리오
千秋月獨閑	천추에 달만 홀로 한가히 비출 뿐인데
羌兒愛吹笛	오랑캐 아인 피리 불기를 좋아하니

두 사람이 서로 길이 달라 헤어지지만, 다시 만나기를 약속한 시이다. 수련에서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스님은 서쪽으로 간다라고 하여 두 사람이 추구하는 세계는 다름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가는 길은 통하지만 그 끝은 항상 산이라는 벽에 부딪는다고 하여 추구하는 세계의 길은 같지만 그 끝은 한가지임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함련에서는 인간은 언제나 혼자임을 강조한다. 옥봉은 결국 미련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이 시는 송별 시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불교에서 정진하는 두 사람의 세계를 형상화 하고 있다.

단순 교유에서 삶의 세계로 의식 확장은 『贈思峻上人』의 시에서 옥봉의 내면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水雲蹤迹本無依	雲水行脚	흔적을 쫓지만 본디 의탁할 데 없어
花發離山麥熟歸		꽃 피면 산을 떠나 보리 익으면 돌아온다네
明日孤帆天際落		내일은 외로운 돛배가 하늘가에 떨어질 쯤
晚江疎磬雨霏微	저문 강	성근 경쇠소리에 가랑비 흩뿌리는구나

玉峯은 思峻이라는 스님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의 세계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는 시이다. 기구와 승구에서 스님의 탁발 행위는 바로 자신의 나그네로서 삶을 투영하고 있다. 전·결구에서는 스님이 절 집을 지키면 늘 하는 행위인 염불공양은 玉峯의 삶에서 미미하지만 반복되는 학문의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형상화했다. 이는 삶의 고뇌에서 오는 탈속의 세계로의 이행³²⁾보다는 玉峯의 삶의 세계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구의 ‘疎磬雨霏微’에서 성근 경쇠소리가 彼岸의 세계라면, 가랑비 흩뿌리는 모습은 此岸의 세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玉峯의 스님들과의 交遊한 詩에는 俗家の 인연처럼 다정한 친구로서의

32) 金鍾西, 『玉峯 白光勳 詩 研究』, 延世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4, 67쪽.

交遊뿐만 아니라, 이상을 추구해 가는 방법이 다르지만 서로 학문을 권면하는 마음, 끝없는 자기 성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VII. 結論

玉峯의 詩 世界는 삶 의 의식은 그의 隱逸적 삶과 연계하여 현실과는 괴리된 꿈으로 승화되었다거나, 사대부들의 전원의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평은 전체적으로 玉峯의 포의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交遊關係를 통해서 보면 좀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을 살펴 볼 수 있다. 환언하면, 玉峯이 交遊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재구하여 그 관계 속에서 玉峯의 삶을 추론해야 한다. 본고에서 논의한 것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玉峯의 스승으로는 思菴 朴淳, 청련 이후백, 송천, 양응정, 소재 노수신과 시에 있어서 스승의 역할을 했던 석천 임억령을 들 수 있다. 이들과 교류는 그의 시편들에서 엿볼 수 있는데, 주로 옥봉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삶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옥봉이 어린 시절 스승을 찾아 학문에 힘쓸 때는 참다운 관료로서 고고한 인품을 꿈꾸었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문우와의 교류는 문단에서 명망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선비들과도 어울렸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고담 이순인, 손곡 이달, 양사언·양사기 형제, 만죽 서익 등 당대에 명성이 있는 문우들과 교류의 시편에서 보면,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이상향인 선계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세계가 주는 상실감을 그대로 수용하는 삶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옥봉의 죽마지우들은 주로 호남의 향우들로 나이가 주로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교감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평생지기인 고죽 최경창, 송강 정철과 시우로서 문명을 날린 백호 임제, 양산형 등과 교류

는 그리움, 따뜻한 위로 등 소박한 삶의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사문과의 교유는 36명이 시편에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서는 막역한 속세의 벗과 같은 교유의 면과 서로간의 학문의 면려와 스님들의 삶을 통해서 끝없는 자신의 성찰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참고 문헌

1. 원전자료

『論語』, 學民社.

朴 淳, 『思菴集』, 韓國歷代文集叢書201, 景仁文化社.

白光勳, 『玉峯集』, 白受璫刊本.

梁應鼎, 『松川集』, 韓國歷代文集叢書452, 景仁文化社.

李 達, 『蓀谷集』, 國立中央圖書館本.

李後白, 『青蓮集』, 韓國歷代文集叢書452, 景仁文化社.

張志淵, 『大東詩選』.

鄭 澈, 『國譯 松江集』.

趙達淳譯, 『完譯 三唐詩』, 태학사, 1999.

崔慶昌, 『孤竹集』, 國立中央圖書館本.

許 筠, 『國朝詩刪』, 亞細亞文化社.

2. 단행본 및 논문

閔丙秀, 『韓國漢詩史』, 태학사, 1997.

박은숙, 『16세기 湖南 漢詩 研究』, 월인, 2004.

박준규,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 2001.

崔慶昌(權純烈譯), 『孤竹集』, 영암문화원, 2002.

金東河, 『青蓮 李後白의 詩文學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金相日, 「朴淳의 唐詩風 추구하고 그 한시사적인 의의에 대해」, 『동원논집』 6집, 동국대 대학원 학생회, 1993.
- 金永國, 「玉峯 白光勳의 詩 研究」, 圓光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종서, 「玉峯 白光勳 詩 研究」, 延世大學校석사학위논문, 1994.
- _____, 「옥봉 백광훈 시에 나타난 전원의 양상」, 『한국한시연구』, 한국한시학회, 2000.
- _____, 「옥봉 백광훈과 호남시단의 교유」, 『한국한시연구』, 한국한시학회, 2002.
- _____, 「16세기 호남시단과 삼당시인」, 『한국한시연구』, 한국한시학회, 2003.
- 朴鍾勳, 「玉峯 白光勳의 詩世界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安炳鶴,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車京和, 「玉峯 白光勳의 交遊詩 研究」, 東亞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8.

<투고일 : 2005.6.30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Abstract

A Study of companionship mentioned in the Baek Kwanghoon's poems

Park, Yeong-kwan

Okbong Baek Kwanghoon(1537~1582) is the poet of Dang poetical style who was called as one of Tree-Dang Poets. To search for Okbong's companionship, analyzing the poems mentioned in 『OKbongjip(玉峯集)』, 112 teacher, friends, poets, acquaintances and 36 monks are investigated.

His teacher was Park Soon, Lee Hoobaek, Yang Eungjeong, No Sushin, Lim Ukryeong affected by the poet. Their companionship usually expressed the consciousness of his life through models as feeling of love, instructor of teachers. Companionship of a literary friend remarks Lee Soonin, Lee Dal, Yang Sagi, Seo Ik etc. The companionship of these people sang the discussion of orienting life world and human relationship. Companionship of old friends remark choi Kyeongchang, Jeong Cheol, Lim Je, Yang Sanhyeong common ownership of nostalgia and agony of being were in shape. Companionship of a Buddhist priest is occupied with many poem among many monks, companions, Sa Joon, Sul Soon, Cheo Min, Haeng Sa, mainly in relationship as a social friend, appearance of different life style, encouragement of study and regret of life present.

In the conclusion Baek Kwanghoon sings his desiring world, idealism and the world of true life, with companionship of various acquaintances.

Key words : Baek Kwanghoon, companionship(交遊), OKbongjip